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une 24, 2022 Vol. 818

아버지 밥상 형제들 “노숙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LA 노숙자들의 영적 재활 기관 아버지 밥상교회(대표 무디고 목사)에서 훈련 받은 청년들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LA 다운타운 거리를 누볐으나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중독에서 벗어났다.

중독에서 해방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과 같이 약물 중독에 허덕이며 삶을 낭비하고 있던 노숙 친구들이었다.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새벽부터 과거 그들이 기다렸던 따뜻한 커피와 수프를 준비하고 LA 다운타운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마음 속에 꽃혔던 “예수는 그리스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를 목청껏 외친다.

그들의 외침은 그저 목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함이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는 아버지 밥상교회 형제들. 맨 오른쪽 무디고 목사 ©기독일보

노숙자들의 아픔과 상처, 중독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노숙자들을 향한 그들의 외침에

는 절규가 묻어난다. 그리고 희망이 담겨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누워있던 자’에서 ‘일

키는 자’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새벽녘 LA 다운타운을 비추는 햇살이 더해져 더욱 환하

게 빛난다.

노숙자들의 변화를 보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역시 아버지 밥상교회의 무디고 목사다. ‘먹이고 입히는 노숙 사역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 현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고牧사는 더 나아가 아버지 밥상 청년들과 함께 LA 다운타운을 넘어 미국 50개 주로 홈리스 사역을 확대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작년에는 미 서부 지역을 돌아보며 노숙자들을 만나고 지역의 협력 교회를 만나 비전을 나눴다. 지난 5월에 방문한 아리조나에서는 현지 한인 교회가 협력하겠다고 나서 지역 센터 건립 추진에 한 발 더 가까이 위치게 됐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바이든,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 승인...전방위적 제한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교차성을 가진 개인의 평등 증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행정부에 ‘개인의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

현을 억압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인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와 같은 위험한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LG-BTQI+)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 상담 치료에 대해 “성소수자 청소년의 자살 관련 생각과 행동 비율을 포함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관행”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자비에 베사라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에게 “청소년들이 소위 전환치료에 대해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또 전환치료가 “연방정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연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지침 발행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은 또 연방거래위원회에 “전환치료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소비자 경고나 통지를 공표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환치료 사용을 중단하게 하는 실천 계획 개발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 명령의 또 다른 조항은 보

건복지부에 “HHS의 권한을 사용, 유해한 주와 지역 법률 및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 개인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에게 “유해한 주 및 지역 법률 및 관행의 표적이 되는 성소수자 학생, 가족, 및 기타 교직원들을 지원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들이 엘라 배마, 애리조나, 아칸소주 등이 통과시킨 ‘미성년자 의료적 성 전환 금지법안’과 12개 주 이상

에서 통과된 ‘트랜스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 일치 스포츠 출전 법안’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미국 보수 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의 테리 실링 회장은 대통령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머지 주에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들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제공합니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RN to BSN) 신입생 모집

- 간호학 디플로마 및 RN 면허증 소지자
- 18개월 과정
- 실시간 줌 수업 및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 근거기반 실무교육
- 연방정부 그랜트 및 장학금 혜택

6월30일까지 입학 등록시 행정비 전액 면제

문의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Tel : (213)388-1000 | E-mail : admissions@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기쁜우리교회 전교인 야외예배로 하나됨 누리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난 19일 아버지 주일 맞아 로워스쿨캐년파크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지난 2년 넘게 움츠렸던 성도들은 야외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아버지의 축복”(창 49:22-26)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경진 목사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축복을 나누는 삶”이라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열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자”고 전했다.

예배 후 이어진 친교시간에서는 라인댄스 공연과 6월 생일을 맞는 교인들을 위한 케이크팅,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지며 전 성도가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기쁜우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켜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전”으로 2017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뤄왔으며, 지난해 10월 글렌데일장로교회로 이전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인규 기자 기쁜우리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미주 CBMC, 차세대 청년리더 20명에게 장학금 전달



차세대 청년리더를 위한 CBMC 장학금 수여식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총회(회장 강승태, 이하 CBMC)가 차세대 청년리더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8일 부엔나 팍 예순 몬테소리 학교 강당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강승태 회장을 비롯해 황선철 장로(미주 한인 CBMC 직전총회장), 이봉우 회장(남가주 CBMC 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승태 회장은 “미주의 기독교 실업인들이 후진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미주에서 훌륭한 차세대 리더가 더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선철 장로는 “더 많은 회원들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 그리고 선교 확장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며 “미국 사회와 전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젊은 세대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CBMC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김동욱 기자

[1면 아버지 밥상 형제들 “노숙자에서 이제는 복음전도자로” 이어]

홈리스 재활 사역 50개 주로 확대할 방침

아버지 밥상교회는 LA를 넘어 시카고 지역에 북부 센터, 뉴욕에 동부 센터, 플로리다에 남부 지역 센터를 세워 각 지역 협력교회와 더불어 미국 50개 주에서 노숙 사역을 추진하고자 한다.

무디 고 목사는 “50개 주의 홈리스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아버지 밥상교회에서 변화된 청년

들이 홈리스들을 도우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이들이 영적 사역자로, 선교사로 훈련되어지고 있다”며 말했다.

미국 50개 주 홈리스 사역에 대한 비전은 RV 한 대를 도네이션 받으면서 시작됐다. 한 목회자가 헌물한 RV는 홈리스 사역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도구가 됐다.

RV는 노숙자 선교를 위한 발이 되어주었고 홈리스들을 먹이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RV에서 샤워와 이발을 마친 노숙자들은 변화된



거리에서 전도하는 아버지밥상교회 형제들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희망을 발견한다.

“RV는 토탈 사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 50개 주에서 RV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RV가 각 주에 하나씩 운행되면서 노숙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노숙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청년들은 망설임 없이 “Prayer”(기도)라고 답한다. 노숙 사역은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중독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는 일이기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노숙자들은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면 누구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며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2022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건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축. 한인 신학교 최초로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TRACS 인가

ats ABHE TRACS CHEA

ATS정회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p>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p>
특혜	<p>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p>

이벤트 1. 교육학 철학박사과정-장학금

TRACS 학위 인가 기념으로 2022년 가을학기 교육학 철학박사과정 등록 신청시 20% 장학금을추가 지급함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 doctoral@gm.edu

이벤트 2.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6월 30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3. 화상입학설명회

6월 17일 오후 4시 Zoom
7월 15일 오후 4시 Zoom
Zoom 커퍼런스ID: 648-961-5938 pw: 2020
*학교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학교홈페이지 GM.EDU에서 LiveChat으로 입학 상담 가능

Tel: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쿠바 성시화운동본부 지부 개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쿠바 성시화운동본부 지부를 개설한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쿠바 현지 교회와 협력하면서 조직적인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선교 거점을 확보하고, 사역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쿠바의 수도 하나마를 방문한 송정명 목사와 이사장 김재권 장로는 쿠바 현지 신학교 사역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쿠바 성시화운동본부 지부를 개설해 쿠바 선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정명 목사는 "미국과 가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쿠바 현지 신학생 및 교계 지도자들과 기념촬영

운 거리에 있는 쿠바에는 2만5천여 곳의 가정교회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키워가 는 중에 있다"며 "쿠바 성시화운

동본부 지부 개설을 통해 새롭게 선교의 길이 열려, 강력한 성령

의 바람과 선교의 열기가 계속해서 타고르고 확장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쿠바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로는 올해 쿠바에서 29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J-선교사가 위촉됐다. J-선교사는 제3세계 국가 쿠바 유학생들을 집중적인 선교대상으로 삼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고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쿠바 방문에서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고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권역 유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동욱 기자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 코로나은혜한인교회 창립



코로나은혜한인교회

코로나은혜한인교회(담임 김대섭 목사)가 오는 6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창립감사예배를 드린다.

코로나은혜한인교회는 남가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개척하는 교회로 초대 담임 목사인 김대섭 목사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지난 12년간 행정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코로나은혜한인교회는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비전으로 선교적 교회, 말씀과 기도, 영성이 충만한 교회를 지향한다.

김대섭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리더십분야 논문상을 받았을 정도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다. 미 군복으로 사역

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 주소는 722 S. Main St. Corona, CA 92882이며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예배 시간은 오후 12시 45분이며 문의는 전화 714) 336-4378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제 9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호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열려



제 9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호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주최한 제9회 청소년 정체성 찾기 호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8일, 은혜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57명의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공모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장려상, 심사위원장상, 인기상, 장학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봉사상 등의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O.C 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님과 효사랑선교회 김영

찬 목사는 이날 최우수상 2명과 각 부분 대상 수상자 1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글짓기 부분 대상 수상자인 그레이스 김(9th)은 당선작을 직접 낭독하는 영예를 누렸다.

김영찬 목사는 “다음세대들이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는 위기의 시대에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물려주어야 한다”며 “성경적 효를 실천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힘쓰자”고 독려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관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예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원희교수(예수전도단), 송정명목사(복음선대 공동대표), 안준목사(유일리미주대표), 신장민목사(복음선대 대표), 유관지목사(복음선대 대표), 김인식목사(MCC 공동대표)

* 별의 복음 외에 번역권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전당 + \$5 우송료

박성원 목사 책의 권자

지금까지 3만 5천부만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음 2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게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드온 북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초청 강사진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58

“모로코 선교지 이야기(1)”

필자는 모로코 선교지에 있다.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 속한 나라다. 아랍어권 이면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모로코의 뜻은 해가 지는 나라다. 아프리카 북서쪽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3명의 시니어 남성팀이 카사블랑카를 시작으로 수도인 라باط, 랄라시를 거쳐 북쪽 도시 탄자르까지 기차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며 도시와 마을들을 돌며 현지 영혼들을 만났다.

이 나라도 청년의 나라임을 느꼈다.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께 처진 청년들이 많았다. 큰 도시로 인구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만난 청년들 가운데는 영어를 잘하는 이들도 많았다. 공원에서 만난 청년들의 꿈은 탈모로코다. 유럽과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가슴이 차오른다.

우리 팀은 감사하게도 현지 사역자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월드 미션 예배를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카사블랑카 현지엔 장기 선교사 가정들, YGM싱글 선교사들, SM 1년 단기 학생 선교사 등의 사역자들이 약 30여 명이 각기 팀을 구성하여 가정교회를 이끌며 사역하다가 1달에 한 번씩 연합 월드 미션을 갖는다.

60여 명의 청년들이 사역센터에 모였다. 예배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강력하였다. 찬양팀 구성은 모로코인, 베르베르인, 필리핀인,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팀이다. 주로 모로코 아랍어와 프랑스어로 찬양하며 영어는 자막으로 비쳐진다. 신령한 은혜로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로 모인 청년 성

도들의 예배 열기는 뜨거워졌다. 아! 북아프리카 모로코 땅에도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젊은 군대가 한국과 미주에서 파송 받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이 모임에서 현지인 사역자 1명의 장기 선교사와 3명의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었다. 모리타니어로 나간다. 우리 미주에서 나간 SM(대학생 선교사)팀이 전도하여 훈련시켜 파송까지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애썼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단기선교를 나가는 3명도 그렇게 전도하여 친구가 되고 양육하고 비전 스쿨까지 수료한 후에 나가는 것이다.

파송식은 그들의 간증과 비전 선포를 듣고 모든 예배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후에 강력한 연합 기도를 드렸다. 파송 받는 자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동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도전과 기도 후원의 결단으로 모두가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순서는 찬양곡 사명을 여러 번 반복하며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그렇게 월드 미션 예배가 카사블랑카 한 복판에서 열려진 것이다. 세상의 땅끝과 같은 북아프리카 최북단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이 땅에서도 열방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선교의 열정을 다하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강태광목사의 문학 칼럼(1)

읽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1963년에 발표한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폭로하는 소설입니다. 솔제니친은 독소전쟁에 포병장교로 지원해 여러 전투에 참전했고 전공을 인정받아 1944년 7월에 적성훈장을 받았지만 사상 문제로 체포되어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문제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친구에게 스탈린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발각되었습니다. 1945년 2월 사상 문제로 체포되어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일반 죄수로 중노동을 하다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알려져서 연구원 전용 수용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용소 당국과 마찰을 빚고 다시 일반 수용소로 옮겨 중노동으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유익한 사업을 위하여> 그리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소련 수용소의 잔학성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물론 그의 이런 작품들은 소련 문단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소련 당국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주인공 이반은 평범한 농부로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곧 독일군에서 풀려났는데 그는 ‘간첩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용소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굴라크로 이송된 그는 얇은 방한복으로 영하 30도 추위에 중노동을 하며 3653일을 보냈습니다. 하루 500g의 빵, 멸건 죽, 그리고 양배추 국을 배급받아 먹었습니다.

작품은 이른 아침인 새벽 5시에 기상한 죄수 이반 데니소비치가 하루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새벽 기상을 알리는 망치 소리에 한 번도 녹장을 부린 적이 없었던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는 기상나팔 소리에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감기 몸살 기운을 느끼

간 5분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연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인간을 작가 솔제니친은 세 부류로 나누어 묘사합니다. 첫째, 게걸스러운 인생입니다. 생존을 위해 내려놓은 부류입니다. 그들은 끼니때마다 퇴식구로 몰려가 그릇에 남아 있는 국물 한 방울까지 훑아먹고 남의 빵을 훑쳐 먹고 부자 죄수에게 구걸을 하고, 콩초를 주워 피웁니다. 그들은 동료 죄수들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수시로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과 인격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둘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결코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 그릇에 얼굴을 처박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산에서 캐낸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뭇거뭇 한” 일종의 존엄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셋째, 첫째와 둘째 양자 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슈호프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죄수처럼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도 “멸건 양배추국 한 사발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자유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반 데니소비치와 그 부류는 인간이 사수해야 할 하한선은 결코 넘지 않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슈호프의 운이 좋아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는 행운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게으름을 피웠지만 영창에 끌려가지 않았습니 다. 낮에는 운 좋게 담배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또 운 좋게 옷 수선에 유용한 줄칼을 간수 몰래 수용소에 반입합니다. 점심에는 귀리죽을 저녁에는 양배추 국을 더 얻어먹는 행운을 누립니다. 이런 시시하고 사소한 것들이 슈호프의 행복한 하루를 보장하는 요건들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P · R · E · A · C · H · I · N · G · C · L · I · N · I · C

2022년 뉴노멀 시대 이동원 목사 초청 강해설교 클리닉

MAIN SPEAKER



이동원 목사
지구촌목회리더십센터 대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
프리칭월드 대표

- ▶ 일시: 10월 10일 (월) 2PM ~ 12일 (수) 9:30PM
- ▶ 장소: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 ▶ 강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 특강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권석균 목사(프리칭월드 대표)
- ▶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설교자
- ▶ 등록비: 개인-\$150 / 부부-\$200
9월 10일까지 등록시 개인-\$130 / 부부-\$180
Payable to 'Preaching World'
점심 및 교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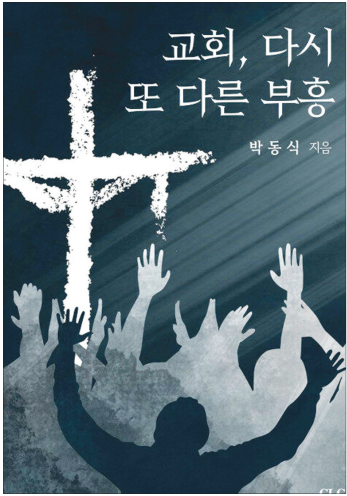
- ▶ 세미나 준비 및 안내
프리칭월드 권석균 목사 (404)579-4570
준비위원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준비위원 오정택 목사 (805)208-8242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213)718-151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 대표 오정택 목사 주하나교회 담임 이인규 목사 기독교일보

주최 프리칭월드 후원 글로벌신학대학원, 미주침례 신문, 월드쉐어USA, 미남침례회한인총회 남가주 지방회

미주장신대 박동식 교수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 출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박동식 교수 신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박동식 교수(조직신학)가 신간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을 출간했다.

저자는 “교회, 다시 또 다른 부흥”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며 그 길을 제시한다. 그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오늘의 교

회 신학과 신앙이 어디서 왔고,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한다.

저자는 개신교의 출발점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고찰하는 데서 출발해 종교개혁과 개혁 교회의 주제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내며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부패에 저항해 개혁을 외쳤던 개신교는 오늘날에도 본질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본질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부흥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역설하며 교회 부흥의 꿈을 독려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하기 위해 부름 받았음”을 각인시키며 부흥을 위해 나설 것을 도전한다.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

학 교수 김인수 박사는 “조직신학자이며, 유능한 신학교 교수인 저자는 교회의 본질을 부패한 가톨릭교회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일으킨 교회(종교)개혁의 원리를 고찰하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가주에 소재한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는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오직’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회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접근해 500여 년 전의 주장을 오늘의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친근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평했다.



박동식 교수 (미주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김동욱 기자

서평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



진유철 목사 신간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

노아 홍수가 다시 나타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노아의 홍수 경고 메시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노아는 홍수 수십 년 전에 노아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직면했던 도전과 난관들이 만만치 않았다. 노아는 형용키 어려운 난관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이것이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노아의 이름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이유다.

진유철 목사의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는 노아를 팬데믹에서 소환한다. 저자는 팬데믹의 위기와 노아의 홍수 위기를 적절하게 대비하면서 노아의 믿음과 삶에서 팬데믹의 해법을 찾고 있다.

저자는 노아가 홍수 팬데믹을 이긴 믿음으로 현재의 팬데믹과 잘 맞이하길 재앙을 이겨내자고 호소한다. 이 책을 읽는 중에 노아의 홍수처럼 온 세상을 덮어 버린 팬데믹의 위력 앞에서 찢쩍 매고 있는 이 시대가 보였고, 팬데믹의 홍수에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모습도 보였다.

이 책을 한국 여행 중에 읽었다. 총4부에 17쪽지의 글을 하나씩 읽고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기에 좋았다. 개인적 기도제목과 팬데믹 현실이 오버랩 되고, 저자의 넓은 독서와 깊은 묵상으로 익혀진 메시지가 가슴과 영혼에 착착 감겼다.

노아에게 배우는 팬데믹의 지혜를 정리해 본다.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삶의 주인이 드러난다. 신앙의 근본 질문은 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바른 주인을 정하고, 그 주인에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주인에게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고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

행 위해 우선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순종이 필요하다.

팬데믹의 홍수를 이기는 비결은 방주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방주는 천국이 아니었다. 각종 짐승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처절한 삶의 공간이었다. 노아는 그 방주 공동체를 살았다. 저자는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들을 소개하면서 그 공동체 적응과 생존의 비결을 ‘오직 믿음으로’로 설명한다.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는 팬데믹 홍수를 이기는 비결이 예배라고 대답한다. 노아가 홍수를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방주에서 내려 온 가족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장면에서 착안한다. 노아가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는 무지개 비전이다. 저자는 무지개 비전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가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의 클라이맥스 결론이다.

팬데믹을 어떻게 이길까? 거칠게 정리하면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이다. 팬데믹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대비하고 싶은 사람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강추한다!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 (시인, 수필가)

제8회 엄마의 마음 장학생 선발, 7월 2일까지



제8회 엄마의 마음 장학회 후원의 밤

엄마의 마음 장학회가 제 8차 엄마의 마음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종류로는 홀부모 자녀 장학금을 비롯해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 신학생 장

학금, 일반 장학금이 있으며, 홀부모 자녀들에게 우대 혜택이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대학 및 대학원 풀타임 재학생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박사과정은 제외된다. 또한 장학금 수여식이 없는 관계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장학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재정확인서, 개인 에세이, 추천서, 성적증명서, 세금보고서 등이며 서류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2일 토요일까지며 우편(P.O. BOX 6214 Buena Park, CA 90622)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문의 전화는 714-402-6482로 하면 된다.

한편 엄마의 마음 장학회는 2015년 창립 이래 매년 한 부모 자녀들을 우선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김동욱 기자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p> <p>신입생 모집</p> <p>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p>카카오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p> <p>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Tel: 562-903-4705</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대학의 최첨단시설(D.A)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p> <p>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mic@aeu.edu</p>	<p>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p> <p>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7.(626)857-2200</p>	<p>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p> <p>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p> <p>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508-826-5145</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p> <p>“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p>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p>

“음란한 퀴어축제 반대” ... 전 국민 서명운동 돌입

같은 일시·장소에 ‘가족과 함께하는’ 국민대회 개최

서울시가 결국 올해도 퀴어축제를 승인한 가운데, 오는 7월 16일 ‘동성에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대회장 유만석, 준비위원장 이용희·길원평, 대변인 주요섭)’ 참석과 퀴어축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https://url.kr/k8up59>)이 시작됐다.

15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서울시가 상정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의 건을 승인했다. 단, 집회 기간을 16일 하루로만 하고, 신체 과다 노출, 음란물 판매·전시 등에 제한을 걸었다.

이에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측은 서울광장 옆 대한문 광장에서 퀴어축제와 같은 일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대규모 국민대회 준

비에 돌입하는 한편,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국민대회 측은 “2015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일반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동성에 퀴어축제 장소로 허락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어 “국민대회를 대한문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는 동성에 퀴어축제는 공개 문화행사가 아니라 선정적인 공연과 음란물 전시장으로 국민들에게 수치심과 혐오를 유발하는 행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계속해서



지난 2019년 동성에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퍼레이드

감당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미국, 영국, 유럽의 나라들은 동성에 앞에 무릎 꿇었지만,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고 순교적인

자세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도 국민대회를 폄하하고 오히려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며 “2015년부터 국민대회가 동성에 퀴어축제를 막지 않았다면 다음 세대

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서울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서울역, 송례문, 서울시청과 계곡천 광화문을 나체로 휘젓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분열이다. 그리고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의 이권 싸움이다. 우리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15일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을 동성에 퀴어축제 장소로 사용을 승인한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2022년 7월 16일에 서울시(오세훈 시장)와 문화광장 시민심의위원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연무대교회 '실로암' 찬양의 감동, 이르면 7월 영화로 만난다



탤런트 한인수 장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김민정 권사(앞줄 가운데) 등 영화 '실로암' 출연 배우들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수천 명의 장병이 목청껏 노래 부르며 신나는 율동과 파도타기를 하는 전설적 찬양 '실로암'의 감동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동명의 군선교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영화감독 신동일 장로와 신장로의 아내이자 더웨이 기독교 문화선교단 단장인 탤런트 김민정 권사,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회장 임흥욱 목사) 등이 합심하여 제작 중인 영화 '실로암'이 각각 군인교회홍보극장개봉용으로 제작된다. 총감독 신동일 장로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촬영이 끝나고 편집 중이다. 목표

는 40분짜리 단편영화였는데, 약 60분 정도의 장편영화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인교회홍보용은 7월 15일경까지 제작하여 7월 중 시사회를 열고, 연무대교회를 시작으로 1,004개 군인교회로 배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26일 저녁 7시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 회년대회'에서는 3분 분량의 예고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극장개봉용은 추가적인 음향과 편집 작업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오는 9월쯤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처음에는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에서 1억 원의 후원금을 쾌척하며

영화 제작이 본격화되었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초교과 연합 사역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극장개봉용 영화는 칸영화제 기독교 부문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15년 전 녹내장으로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선고받은 신 장로는 현재 녹내장 말기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다.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의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의 사건보다 그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일이었을 터다. 신 장로는 “눈이 점점 흐려가는 저로서는 이번 영화 제작이 대단한 도전이었다”고 고백했다.

영화 '실로암'은 군대에서 매주 실로암 찬양을 부르던 주인공이 제대 후 뮤지컬 실로암에서 예수 역할을 맡으면서, 결국 실로암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는 줄거리를 따른다.

신동일 장로는 “영화 '실로암'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자고 배우들과 함께 기도했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이영훈 목사 “北 측서인민병원 건립 추가 요청”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지난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보낸 서류에서 조용기평양심장병원(가칭, 이하 평양심장병원) 준공 이후 북한 내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세워달라는 북측 요청이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2007년 12월 평양심장병원을 착공했다. 이 병원은 평양 중심부의 약 2만㎡ 규모로 260개 병상을 갖춘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발발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어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에 따라 사실상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년 간 검토 끝에 지난해 11월 의료장비와 물품의 대북 반입 제재를 일부 풀기로 했다.

이 목사는 1천 500개 이상의 의료 관련 장비에 대해 미국 정부의 검증을 거쳐 반입 허가를 받았다며 향후 사마리안코스 재단이 심장병 의료장비 설치를 도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사가 재개되면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장비 설치 등 각종 준비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를 거쳐 대략 6개월 이후 평양 심장병원이 개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훈 목사는 “평양심장병원은 앞으로 북한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또한 “북한 시골은 가장 열악한 것이 병원과 약”이라며 앞서 밝힌 평양심장병원의 준공 이후 북한 군내 인민병원의 추가 건립에 대해선 “개신교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보건소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인민병원을 세우고자 한다면, 1곳당 약 10만 달러(한화 1억 2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노형구 기자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중추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콘산 아연
- 홍화씨유
- 달맞이꽃 중추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러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포 배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도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세포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에도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세포 배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이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세포 배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 실험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결합시켜 시금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뇨의 대사를 도와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행 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방법 : 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선택강의 선착순으로)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통일연합기도)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담임



(탈북구제사역)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북한농업실무)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전문인사역)
정규재 목사
강일교회/연변과기대



(북한현실/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학교



(북한지하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주관교회)
정영락 목사
한빛장로교회



(통일전략/북한통치이해)
김요한 목사
유니티미션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수씨'



(북에서 남으로)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청년비전, 스피치/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통일청년세대)
조평세 박사
'바로서다' 이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굼주림보다더큰목마름

☺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미주기독일보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www.LASarang.com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섬김자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진도와 영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예배 오후 7:45
절단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626)744-9191 www.lolmc.org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 (371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여 주차)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생애 활개 달라라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리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교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가정)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남침례회, '여목사 안수' 새들백교회 제명 결정 연기



과거 열렸던 미국 남침례회 총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남침례회(SBC) 총회는 지난해 3명의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 새들백교회(담임 릭 워렌 목사)의 제명 여부를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새들백교회는 작년 5월, 리즈 퍼피, 신시아 페티, 케이트 에드워즈 등 3명의 여성 목회자를 임명하면서 '역사적인 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여성에 대한 안수를 금지해 온 교단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SBC 자격위원회는 14일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SBC 연차총회에서 새들백교회의 지위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격위원회는 대외적으로 협력 중인 교회가 교단의 신앙과 실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자격위원회 린다 쿠퍼(Linda Cooper) 의장은 "릭 워렌 목사와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 등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직 '침례

교 신앙 & 메시지 2000'(Baptist Faith & Message 2000)에 따라 새들백교회에 권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쿠퍼 의장은 "SBC의 대다수가 담임목사, 장로, 감독 또는 감독의 기능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남성으로 제한된다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 자격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된 견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침례회신학교 알 몰러(Al Mohler) 총장은 2021년 칼럼에서 "여성 목사 안수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몰러 총장은 "이러한 움직임은 SBC 신앙과 협력 사역의 확고한 기초를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며 "지난 2000년 SBC가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에서 이미 이러한 신학적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바뀌지 않았으며 바뀔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팀 켈러 목사 아들 "아버지 면역 치료 부작용... 기도해 달라"

췌장암 4기로 투병 중인 팀 켈러(Tim Keller) 목사의 아들이 소셜미디어에 "아버지가 현재 진행 중인 면역 치료의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팀 켈러 목사의 아들 마이클 켈러(Michael Keller)는 13일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현재 면역요법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며 "아버지의 치유와, 훌륭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진의 결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깊이 사모한다. 보내 주신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켈러 목사는 2020년 5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상황을 공유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

는 국립암센터에서 면역요법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켈러 목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며 "치료의 기적적인 효과와 최소한의 부작용을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고 했다.

켈러 목사는 2021년 4월 CP와의 인터뷰에서 "췌장암은 특히 공격적인 질병이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사망자가 발생한다. 올해는 매우 어려운 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교인이 목회자를 학대하는 11가지 방식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뉴욕 부활교회 담임 목사)가 쓴 '교인이 목회자를 학대하는 11가지 방법'에 대해 최근 소개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이다.

1. 목사는 휴가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어떤 이들은 목사가 초월적인 존재이며, 일과 사역을 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목사는 가끔 좋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사람들 대부분은 목사들이 어떻게, 왜 좋은 것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 이야기는 잘 모른다.
3. 목사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계를 끝없이 넘는다. 교인들이 목사의 개인적인 가족 시간을 거의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목회자 학대다.
4. 자신에게는 위급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목사가 자신의 삶과 가정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도와주길 기대한다.
5. 리더십의 결정에 관한 함담과 비방 교회 문화가 목회자와 리더십을

향한 비판의식을 키운다면 이는 일종의 목회자 학대다.

6. 목사는 지속적인 배신을 경험한다. 예고나 설명 없이 그들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7. 목사는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보상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끊임 없이 자신의 생명과 에너지를 교회에 쏟아붓는다. 대부분은 이를 당연시 여긴다.
8. 목사는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고 기대한다.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가 주당 60-80시간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목회자 학대다.
9. 많은 목사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재정적으로 확립된 교회가 개척 목사의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목회자 학대다.
10. 많은 목사들이 영향력을 위해 이용당하고 진정한 친구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위해 목사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11. 목사가 신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전문가이길 기대한다. 많은 목회자들은 재정 문제, 부동산 문제, 사람 문제 및 전략과 관련한 모든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김유진 기자

전 세계 강제 실항민 1억 명...10년째 증가해 최대 기록

유엔난민기구는 강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해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가 강제 이주민 수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공동의 노력 없이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개된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쟁, 폭력 사태, 박해 및 인권 침해로 피해 강제로 집을 떠난 사람들의 수는 약 893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824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강제 이주민의 수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동향 보고서 수치 집계 기준인 2021년 말 이후에도 강제 이주민 숫자는 계속 증가해 2022년 5월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고 급격한 규모의 실항 사태를 야기

했고,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 세계 긴급 사태들은 전체 강제 이주민 수를 1억 명 이상으로 만들었다. 1억 명은 전 세계 인구 1%를 넘는 수치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의 국민 숫자와 비슷하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의 95%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파키스탄(150만 명)이 난민과 난민 신청자를 가장 많이 보호하는 국가로 이름을 올렸고, 방글라데시(91만 9000명)와 이란(79만 8000명)이 그 뒤를 따랐다.

필리핀 그랜드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강제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이러한 인류의 비극을 논의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참담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 새로운 실항민들의



에티오피아 소말리 지역의 기후 변화와 가뭄으로 수많은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다. 가족 대부분은 집과 가족, 농지를 잃었다. ©유엔난민기구 제공

수가 증가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23개국에서 약 8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분쟁을 겪어야 했다. 이와 함께,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및 기후 위기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제 실항의 증가 추세 및 구

모는 귀환, 재정착, 현지 통합과 같은 실항민들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속도를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는 일말의 희망이 담겨 있다. 2021년에 귀환한 난민 및 국내실항민의 수가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자발적 귀환 사례는 2020년보다 71% 증가했다.

또한, 8만 1200여 명의 무국적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얻게 돼 무국적 종식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IBelong 캠페인이 시작된 2014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로 무국적자수가 감소했다. 최승연 기자

부르키나파소 민간인 최소 100명 피습 사망



©Al Jazeera 유튜브 채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부 시골 마을에서 지난 주말 무장 단체의 공격으로 최소 1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1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지 및 보안 소식통은 괴한 테러가 11일 밤 세이텡가 코핀 지역에서 발생해 남성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망자 수는 최대 165명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

괴한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이 활동하는 접경지 세

노 주에 속해 있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공격으로 추정된다.

현지 관계자는 구호단체가 있는 인근 도리 지역으로 주민 3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도리로 피신한 한 생존자는 AFP 통신에 “테러범들이 장이 열리는 토요일에 마을로 쳐들어왔다”면서 “테러범들은 들어서자마자 총격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또 “오직 남자만을 겨냥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오가며 불을 지르기도 했다”며 “도망치

는 모든 사람에게 사격을 가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마을에 진을 쳤다”고 생존자는 덧붙였다.

AFP 통신은 29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14일까지 사망자 수가 7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피해 지역 곳곳에 설치된 부비 트랩과 지뢰로 인해 수색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테러는 2016년 부르키나파소에서 서아프리카 지하디스트 폭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르키나파소 북동부 야가 주에서 민간인 160여 명이 테러로 사망한 지 1년 만에 발생했다.

2022년 각 국가별 테러 위험성을 정리한 ‘글로벌 테러 지수(GTI)’에서 부르키나파소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 이어 세계 4위이며, 나이지라는 6위에 올라 있다. 2022년 오픈도어스 USA는 부르키나파소를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 중 32위에 올렸다.

김유진 기자

홍콩 가톨릭 주교, “종교 자유, 교회 안에 점점 줄어가”

홍콩의 가톨릭 지도자가 홍콩 교회가 점점 더 좁은 틈새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1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홍콩 가톨릭 교구장인 조우샤오안(Sau-yan Chow) 주교는 최근 가톨릭 매체 ‘선데이 이그제미너’에 기고한 글에서 “홍콩 교회가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교구장에 임명된 그는 ‘홍콩국가안보법’이 시행된 이후, “한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가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중국 본토가 국가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혐의가 홍콩 시민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조우샤오안 주교는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가 홍콩

교구 주교인 조셉 쯐(Joseph Zen) 추기경을 체포한 데 대해 항의하는 글을 내보냈다.

90세 고령인 쯐 추기경은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국가 안보 경찰에 체포됐다가 그날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즉시 홍콩 정부와 국제 인권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쯐 추기경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재판과 체포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 시행된 ‘홍콩 범죄인인도법(중국 본토가 홍콩 범죄인을 소환할 권리를 인정한 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홍콩 시민 1만여 명을 체포했으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 170명을 반중 활동 혐의로 체포했다.

강혜진 기자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시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amsungmoving@gmail.com

6.25 한국전쟁 제72주년 상기 예배 및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

일시: 2022년 6월 25일(토) 오전 10시30분

장소: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1부 : 상기예배



설 교
피종진 목사
(세계기도모임 대표총재)

■ 2부 : 기념행사

■ 3부 :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 및 자유통일을 위한 일천만 서명

주 최

세계기도모임 미서부지부

주 관 단 체

남가주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대한민국역사지킴이운동본부
미주3.1여성동지회
미주한인재단 LA
청교도운동본부(가나다순)

동역교회 및 단체

광명교회, 기드온동족선교회, 남가주소망교회, 미주애국동지연맹, 미주예문교회, 세계기독교어머니선교회, 순복음제자교회, 월드쉐어 U.S.A,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 K.A.C.C, N.K.I.A 탈북자선교회, 통일장학회, 하늘문교회

문의전화:(310)404-6219



■ 강준민 칼럼

한 번 더 시도해보는 지혜

저는 요즘 날마다 걷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걷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동안 걷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절실하게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묵상하고, 걸으면서 꿈을 꿉니다. 때로는 만 보를 걷고 때로는 이만 보를 걷는 날도 있습니다. 걷는 중에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이 탓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살겠다는 핑계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계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인간의 수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생은 1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막, 3막, 그리고 4막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가서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날마다 걷는 중에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반복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축적의 원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복의 횟수를 더해 갈 때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될 때 순식간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식간에 맺게 되는 놀라운 열매는 사실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횟수를 더하는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의 능력을 압니다. 작은 시도, 작은 것이 축적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멈춘 자리에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꿈을 꾸십시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젊은 이는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행 2:17). 꿈을 꾸는 것은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존 업다크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렘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수 14:12)라고 도전했습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눅 18:1).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불행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기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저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새생명비전교회는 제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도전하라는 사인입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중요한 것은 쓰러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로빈슨은 "가장 큰 실패작 후에 최고의 걸작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도 노벨은 "내가 가진 아이디어 1천개 가운데 딱 하나만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셉 M. 마셜의 말을 좋아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딛는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일찍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어둠 속에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연재 '꿇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네. 도대체 자기를 낳은 부모도 믿지 못하는 세상

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더구나 그 때문에 총살까지 당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나는 그에게 내가 겪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가 360도 돌려차기 훈련을 받아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 후 대풍을 거둔 일 등을 말해 준 것이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도적질에 대해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싸움판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이야기는 해주었

다. 전용식이 솔깃해서 내 얘기를 듣는데 소극파의 옥씨가 "자네는 복음은 전파하지 않고 자네가 지은 죄를 벌하는 하나님만 늘어놓고 있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한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가시길 바라네" 하고 권고했다.

솔직히 내 말을 가로챈 옥씨가 못마땅했지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전용식의 반응을 보니 옥씨의 편안이 그르지 않았음을 알았다. 내 얘기에는 흥미만 보이던 전용식이 옥씨의 복음을 듣고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전용식은 어디서 성경을 구입했는지 외울 정도로 읽더니 전도자로서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지역 광업 부문의 간부를 모두 전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기세로 전도에 힘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배경은 이랬다.

북한 운전 기사들은 보통 다른 지방에 가면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석에서 잠을 잔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들이 한순간에 차

바퀴며 라이트 부속과 유리까지 훔쳐가기 때문이다. 전용식도 그런 까닭에 타지에 가면 트럭을 지키느라 운전석에서 잠을 잤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2006년 10월 겨울 김장용 채소를 가지러 농촌에 갔다가 운전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다. 전용식의 평소 건강 상태로 봤을 때, 대장이 좋지 않긴 했지만 심장마비로 죽을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그의 죽음에 의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동료들에게 엄밀히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한 가지 미심쩍은 사건이 포착됐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우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적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도전 부부가 겪은 가난과 고난

정도전(1342-1398)은 고려에서 벼슬을 하였고, 조선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개국공신입니다. 그는 이성계를 도운 사상가이자 행정가였으나,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을 유교의 국가로, 특히 주자학으로 사회 이념을 삼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려의 봉건제를 조선의 중앙집권체제로 개편하되, 조선을 절대 왕조가 아닌 사대부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도전이 어지러운 고려말에 개혁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1375년, 30세 초반에 나주로 유배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죄수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도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편지를 통하여 남편 정도전에게 다음과 같이 집안의 가난에 대하여 하소연합니다.

“당신은 평일에 글을 부지런히 읽으시느라 아침에 밥이 끊든 저녁에 죽이 끊든 간섭지 않아... 아이들은 방에 가득해서 춥고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제가 끼니를 맡아 그때그때 어떻게 꾸려 나가면서도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시니 뒷날에 입신양명하여 처자들이 우러러 의지하고 가문에 영광을 가져오리라 기대했는데, 끝내는 국법에 저촉되어... 몸은 남쪽 변방에 귀양을 가고... 형제들은 나가 쓰러져 가문이 여지없이 망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현인 군자라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는 것이 진실로 이러한 것입니까?”

아버지이자 남편인 정도전은 아내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온당하오. 나에

게 친구가 있어 정이 형제보다 나왔는데, 내가 패한 것을 보더니 뜬구름같이 흩어지고 그들이 나를 근심하지 않으니 이는 본래 세력으로 맺어지고 은혜로 맺어지지 않은 까닭이오. 부부의 관계는 한번 결혼을 하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는 것이니, 그대가 나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해서 이지 미워서가 아닐 것이오.

만일 21세기에 이르러 정도전과 같은 답장을 아내에게 보낸다면 지지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날을 맞은 지금 아버

지나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현재의 기대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의 혁명가나 독립운동가의 경우,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기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이나 선교사의 경우는 남편, 아버지, 자식의 의무는 종종 으뜸이 아닌 버금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모든 신자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맡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과 친구가 되는 것은 그리 평범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신학생이 되어

학교를 졸업한 지가 까마득한데, 다시 학생이 되어 학교에 오니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유'입니다. 교수님들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점잖게 가르치시는데, 학생이 된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수업에 들어가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목사이다 보니 늘 입을 열어 가르치는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 입 대신 귀를 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같이 배우는 후배들을 보니 모두 내로라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인데 모두 어찌나 열심히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달해주는 점심과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면 숙제하고, 아침에는 호텔에서 주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다시 학교로 와서 저녁 식사 전까지 그야말로 '밤만 먹고 수업만 듣는' 모습이 마치 고등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논문을 열심히 써야 하는 저는, 교회 사역 중에는 설교 준비에 급급해서 논문을 위해 읽어야 할 책들을 읽지 못해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가, 야단 야단 야단을 맞고 이제야 책들을 찾아 읽으며 논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30대에 끝내야 하는데, 6학년이 되어 늦깎이 공부를 하려니, 머리에서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3,500에서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수는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영적인 기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는 듯 합니다. 물론 매년 세워지는 교회들도 많지만, 기존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문을 닫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교회가

문 닫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라난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재미도 없고, 서서히 출석 교인수가 줄어가는 예배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리더십은 강단 리더십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열공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식사하면서 가끔씩 나누는 대화 속에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눈물을 봅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아사셀 * 같다고나 할까

요. 교회의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목회자 혼자서 비동거리는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런 순수한 목회자들을 돕고자 시작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 일익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후배들과 저에게 맡겨진 시간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두 염소가 나옵니다. 한 염소의 피는 희생되어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고, 다른 한 염소는 백성들의 눈앞에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려가 버려집니다. 이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영영히 떠나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염소가 아사셀입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올 보험회사,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월지급 조식,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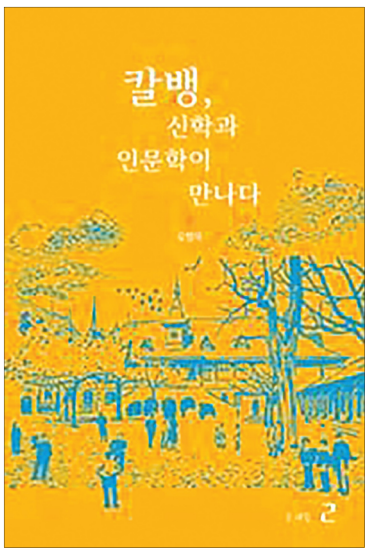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역협의회 고문 변호사
(원)재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칼뱅 신학, 인문학으로 성찰하기

신학자였지만 결국 '그 시대의 아들'이었던 칼뱅(칼빈)



칼뱅,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다
오형국
글과길 | 240쪽

칼뱅,
오늘의 한국교회를
말하다!

칼뱅에게
인문주의 학문은
'신학의 시녀가
아니라
기사(chivalry)'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은 끊임없이 중요한 어휘이다. 인문학은 인간 사회와 문화의 양상들을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분야이다.

필자는 이를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잡스는 Liberal Arts[Seven liberal arts, 3학(trivium, 문법, 수사법, 변증법) + 4과(quadri-ium,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라고 하면서 자기 요체를 융합, 인문학과 과학을 접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제언했다. 서양의 기본 학제는 Liberal Arts이다. 우리 시대는 인문학과 기술(자기 학문)을 통섭(統攝, Consilience, 융합)시켜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인문학은 사회 기본 요소이다. 사회와 함께 있는 기독교도 인문학과 통섭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절대 가치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교계에서 다양한 인문학 저술이 발간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기독교와 인문학을 통섭하는 과정을 김도인 목사와 아트설 교연구원에서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 출판사 '글과길'을 설립하여 본격적 행보를 갖고 있고, '글과길'에서 오형국 목사와 <칼뱅,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다>를 출판했다. 목회자 이중직 수행도 인문학적 통섭의 한 분야로도 볼

수 있겠다.

오형국 목사의 <칼뱅,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다>는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한국학술정보, 2006)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출판한 책이다. 학위논문을 정리해 출간한 것이라고 한다. 연구자가 자기 학위논문을 출판해 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자는 칼빈의 인문학적 소양과 신학에서 드러나는 인문학적 기법을 밝히고 있다. 칼빈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크게 둘로 제시하는데, 먼저 신학적 인식론이고, 다음은 수사학적 신학이다.

칼빈은 성경의 학생으로 사고하는 인식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칼빈에게 나타난 수사학에 대해 제



시한다. 수사학은 한국 신학교에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수사학은 고대철학에서 끊임없이 유지되어 온 주요 과제이다.

저자는 수사학에서 문헌학, 성경해석학에 대한 적응성과 웅변성 등 다양한 분야를 제시했다. 그리고 수사학에서 관여된 언어, 문체까지 제시하여, 수사학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했다. 인문학에서 수사학은 필수불가결한 분야이고, 어쩌면 최종 표현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존 칼빈 장 칼뱅저자는 중세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좋은 역사 이해를 제공한다.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르네상스의 성향의 차이를 밝혀주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중세의 관상적인 삶에 대한 의지와 정념(passion)과 행동적 삶(vita activa)으로 밝힌 것은 유익한 정보이다. 중세 인간 이해를 종교개혁에서 급격하게 탈피하지 못한다.

루터와 칼뱅은 성경과 적극적인 자기부인으로 신학 체계를 이룬 신학자들이다. 그러나 이 길에서 벗어나면 바로 중세 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자는 칼뱅이 인문주의 조류 속에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학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칼뱅 초기 학문 과정을 살펴본다면, 칼뱅이 얼마나 인문학, 인문주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한 인본주의, 인문주의가

신본주의 신학자로 전향한 것이며, 그러한 칼뱅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칼뱅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이 칼뱅에 대한 전기를 많이 읽었지만, 오형국의 글을 읽는다면 좀 생경한 관점에서 그려진 칼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에 팽배한 학문 풍토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 연구자나 모든 사람은 칼뱅(칼빈)에 관한 글은 어찌 됐든 읽어내면 좋다. 오형국의 글은 좀 다른 관점에서 칼뱅을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인문주의와 연계시킨 칼뱅에 대한 연구는 외국 학자에게 있지만, 외국 학자의 글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칼뱅, 신학과 인문학이 만나다>의 저자는 한국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당시 인문학적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칼뱅을 그려봄으로써 좀 더 칼뱅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는 칼뱅을 신학자로 강조하지만,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칼뱅을 그려내고 있다. 그 사람 칼뱅이 신학자였다는 것이다. 칼뱅의 의식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인문학도로서 즐거운 과정일 것이다.

고경태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6월, 작가들의 말말말③]

◆한국기독교교청학회-크리스천 코칭 디스커버리

자녀가 어릴 때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아야만 건전한 애착이 형성된다는 말은 아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돈을 번다는 식으로 방식을 정당화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각각의 환경에 따라 직접 양육하거나 대리양육자가 양육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관심과 시간을 양적 질적으로 더 가치 있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점을 격려할 때는 먼저 잘한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노력한 부분을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완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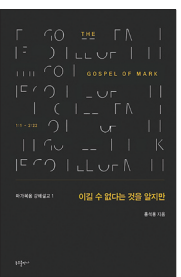
진보와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또 부모나 자녀 모두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가 벌어진 상황 곧 미진하고 미완성인 상태를 견딜 수 있다.

◆홍석용-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잘못 가진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 주셨다' 혹은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열매나 얻어먹겠다'라는 알팍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도 따라야 할,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시작도 죽음이었고, 마지막도 죽음의 삶이었다면 그 중간의 삶은 더더욱 죽음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죽음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지, 그 차이를 근거로 해서 차별을 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멀리하는 사람들,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없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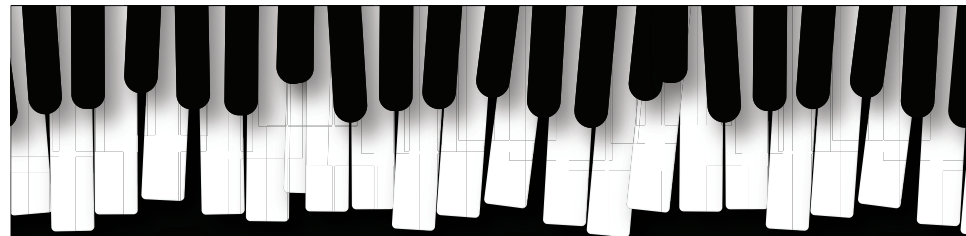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는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Richmond)에 위치하고 1967년에 창립하여 54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입니다. 4대 담임목사님의 15년이 넘는 사역 후 은퇴로 인하여 5대 담임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richmondkpc.com

1. 목회자 청빙 자격 조건
 - 1) 소속 : 미국장로교 (PCUSA)에 소속된 분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2)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를 받은 분
 - 3)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경력자
 - 4) 언어 : 한국어와 영어의 소통이 가능하신 분
 - 5) 신분 :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 1) 이력서(PCUSA Form PIF: Personal Information Form) 양식 또는 자필 이력서
 - 2)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 3)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로 추천자의 이름과 연락처)
 - 4) 목회 계획서
 - 5) 신앙고백서와 목회철학
 - 6) 최근 6개월 내 설교영상
 -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3. 제출 마감일시
2022년 6월 30일
4. 제출처
우편 : 청빙위원장, 서유석 (Peter Suh)
2700 Stemwell Blvd., Richmond, VA 23236
Email : richsuh@aol.com
전화: (804) 852-0541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성가대 및 찬양팀 반주자로 섬기실 분을 모십니다.

1. 지원자격
 - 1) 성가대 및 예배 키보드 반주 동시에 가능하신 분 (코드연주 및 Key-Updown 자유로우신 분)
 - 2) 찬양팀 경험자 우대
2. 사역내용
 - 1) 주일 1부(8시 예배), 2부(10시 45분 예배) 성가대 반주 및 찬양팀 반주
 - 2) 수요일예배(추후 예정)
3. 필요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소개서
4. 보내실 곳
토랜스 참사랑교회(1432 Engracia Ave. Torrance, CA90501)
이메일 : medialee68@gmail.com
홈페이지 : thechamsarang.org
문 의 : 562)338-9209

토랜스 참사랑교회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 (上)

영화 <브로커>, 한국 아동 인권에 대한 외국의 질타

일본 특유 정적 연출과 열은 감정선 연기 낯선 듯 유아동 수출 1위국 민낯, 90%가 미혼모 낳은 아이 양육 포기한 아이들 보살핌 제도, 민간 역량 부족 “영혼 사랑한다” 자처하는 기독교, 질문에 답해야

◆일본의 아동권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바라본 일본의 아동권리 침해

베이비박스 버려지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빼돌려 불법 입양의 대가로 돈을 받는 브로커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브로커>가 지난 주 개봉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사회문제, 특히 가족의 붕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다뤄 감독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아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이 작품으로 주연을 맡은 송강호 배우는 얼마 전 개최된 2022년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중이다. 지루하고 밋밋한 전개에 흠평을 남기는 관객들이 다수 눈에 들어온다. 일본 영화 특유의 정적인 연출 방식과 감정선 열은 연기 및 대사가 국내 관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듯하다.

이로 인해 오랜만에 한국영화 1천 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 <범죄도시 2>에 비해 상당히 빈약한 티켓 파워를 보여주는 중이다.

그러나 영화 연출 방식이나 서사의 흥미로움에 대한 흠평과는 별개로, <브로커>가 전달하는 주제의식은 누구든 한 번쯤 깊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과 전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영아 유기 및 아동학대 문제는 반드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활동 초기인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두각을 드러낸 고레에다 감독은 1995년 상업영화 분야로 진출한 뒤 줄곧 일본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특히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여러 편 연출한 바 있다.

그는 <아무도 모른다>(誰も知らない, 2004), <걸어도 걸어도>(いても いても, 2008), <어느

가족>(万引き家族, 2018) 등의 작품으로 명성을 얻어, 현재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어느 가족>은 2018년 칸 영화제 최우수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고레에다 감독이 가족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그만큼 2000년대 이후 일본 내 가족 문제, 특히 가족의 붕괴와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0년 ‘아동 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한국이 2014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보다 14년이 빠르다.

일본은 1990년 후생노동성이 최초로 아동 학대 상담 건수를 통계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이후 상담건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매년 40-50명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일본 내 일반적인 아동 학대는 친부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 학대 살해나 치사 건수는 친모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의 유아인권: 역대 1위 아동 수출 기록과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이렇게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아동 학대 상담 건수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아동 학대 살해 건수를 놓고 일본에서는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문제의식을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대중문화계도 이런 동향에 발맞춰 아동 학대에 관련된 드라마, 영화를 여럿 제작해 대중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작 고레에다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는 1988년 한 미혼모가 아파트에 어린



한국의 영아유기 실태를 고발하고 가족애에 대해 되짚어보는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브로커>.

네 남매만 남겨두고 집을 나간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2008년작 <장미 없는 꽃집>(薔薇のない花屋)은 어렸을 때 유기되거나 스스로 부모와 연을 끊어야 했던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10년작 <마더>(Mother)는 친모의 애인에게 매일 구타를 당하는 어린 소녀를 죽은 것으로 꾸며 데려가 사랑으로 키우는 한 조류학자의 위태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015년작 <우리의 갈대>(硝子の葦)는 심한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던 이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해자들을 살해하는 복수극을 주된 서사로 삼는다.

역시 2015년 제작된 <너는 착한 아이>(きみはいい子)는 2010년 발생한 오사카 아동 아사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고레에다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 이후 영아 유기나 아동 방치, 아동 학대 사례들에 대해 엄중한 문제의식을 표명하는 작품들이 자주 제작되었다.

한국은 뒤늦게 관련 주제에 대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드라마 <킬미, 힐미>(2015)와 <시그널>(2016)이 단편적으로나마 아동학대에 관련된 서사를 선보였고, 2018년 일본 드라마 <마더>가 국내에서 리메이크되었다.

그리고 2021년 초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시기, 아

동학대 문제를 정면으로 저격하는 <고백>(Go Back)이 개봉된 적 있다.

국내 대중문화계에서 확인되는 이런 조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유아 인권 및 아동 권리 침해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도 2010년대 들어 유아나 아동에 대한 친권자들의 무책임과 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영유아 및 아동 인권이 대단히 취약한 나라로 전 세계에 인식되고 있었다.

미혼모를 크게 멸시하는 풍토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한국은 1970년대 이래 누적 수치로 따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기들을 외국으로 수출해 입양시킨 기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압도적인 유아 및 아동 수출 1위 국가였다. 그 뒤 2011년까지 세계 3-5위 선을 유지하다 2011년 다시 1위 국가로 올라섰고, 이후로도 아동 수출 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출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보내져 입양된다.

우리나라만큼 아동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이 있다. 한국은 유독 경제 발전도에 비해 아동 수출 비율이 높아, 향상된 국력에 부합하는 유아 인권 및 아동 권리 의식을 갖추지 못한 나라

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수출되는 아동의 90%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다. 국내에서는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하게 버린 아이들을 적절히 보살핌 만한 제도적 지원도, 민간의 역량과 지원도 부족하다. 베이비박스같은 방편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나마 길바닥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지만,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반대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브로커>에서 고레에다 감독이 영아 유기 문제를 서사의 핵심 요소로 다룬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가족 간 사랑, 책임, 희생, 유대감을 중시하는 외국인 감독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의 가족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영아 유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 <브로커>의 메시지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인간애, 그리고 예리한 비판 능력을 지닌 외국인들이 국내의 유아 인권 상황을 두고서 한국인들에게 던지는 질타 섞인 물음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한국인,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물음에 성실히 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서울동부지역 으뜸병원, 헤민병원
헤민병원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큰 행복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진센터 이성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